



11월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본 행사에 앞서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ljoo@ibulgyo.com

“사회와 소통하며 화합 단초 마련”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법회 봉행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사부대중 3000여명 동참

“한국불교는 이제 사회와 소통하며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고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사).”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취임법회가 지난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법회는 신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하면서 시작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치고 법전 종정예하의 법어가 이어졌다.

법전 종정예하는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신임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종단 안정을 위한 종도 간 화합을 주문했다. 종정예하는 “새 원장(院長)은 안과 밖을 다스리는 대기대용(大機大

用)이 있을 뿐 아니라 안으로 부쟁(不靜)의 덕(德)을 쌓았고 밖으로는 구세대비(救世大悲)의 기용(機用)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유정(有情)을 편안케 할 것이요 갈등을 풀어 해치는 원용(圓融)의 지혜(智慧)가 있으니 모든 중생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익(利益)에 얽매어 이합(利合)을 저버리면 가는 곳마다 장애(障礙)가 따를 것”이라고 경계한 뒤 “대중을 섬수하고 종문(宗門)의 정안(正眼)으로 옳고 그릇됨을 가려 종통(宗統)을 바로 세우면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를 대표해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 묘린 주한 미얀마 대사,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이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화환을 봉정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사를 통

해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불교중흥이라는 종무기조를 엄숙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 불교와 종단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청정한 수행종풍과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넘어왔다”며 “안정과 화합을 이룬 지금은 내실 있는 발전과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며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될 것”이라며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해 모두가 무차화합하고 큰 서원으로 조계종의 새 역사를 이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종단 내외 인사의 축하사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사에서 “서로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라는 불교의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가르침이라 생각한다”며 “대

자비(大慈悲)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해 나가시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렸다. ▶관련기사 2면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역시 축하사에서 “이제 우리는 소통과 화합, 도약과 중흥의 견인차가 될 적임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자승스님은 출가 본연의 정신을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 종도와 국민을 아우르는 중무행정을 실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원로회의의 부의장 지혜스님과 밀운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활안·원명·진제·도문·명선·혜승·정무·현해·혜정·무진장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요영 특임장관, 박재환 청와대 불자회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취임축하 법어

“하늘·땅에서 佛日 넘치도다”

오늘 이 자리는 영산(靈山)의 법등을 밝혀 소림(少林)의 종지를 선양하고 불조(佛祖)의 유업을 전승하여 다시 종풍을 일으켜 세울 제 33대 총무원장의 취임식을 갖는 법석입니다.

남다른 지혜와 기개로 다수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어려운 관문을 헤쳐서 오늘의 경사스러움을 만들었으니 하늘과 땅에서 불일(佛日)이 넘치고 도업(道業)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법륜이 닿는 곳에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창조가 열릴 것이고, 도업이 일어나는 곳에는 만물이 새로운 이택(利澤)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원장은 안과 밖을 다스리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을 뿐 아니라 안으로 부쟁(不靜)의 덕을 쌓았고 밖으로는 구세대비(救世大悲)의 기용(機用)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유정(有情)을 편안케 할 것이요 갈등을 풀어 해치는 원용의 지혜가 있으니 모든 중생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안과 밖을 계합(契合)하는 줄탁(喅탁)의 기락이 있고 갈등을 통합하는 지혜가 있으니 종단은 날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도림법전

조계종 종정예하

그러나 이익에 얽매어 이합(利合)을 저버리면 가는 곳마다 장애가 따를 것이고, 다툼을 일삼으면 본분을 잃고 혼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절복(自己折伏)과 근기에 알맞은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대중을 섬수하고 종문(宗門)의 정안(正眼)으로 옳고 그릇됨을 가려 종풍을 바로 세우면 불조의 혜명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의 미래는 눈 밝은 선지식을 배출하는데 있으니 법부를 고쳐 성인이 되게 하는 수행가풍을 이어가야 합니다.

佛紀 2553년 11월 5日

신임 교육원장에 현응스님

제182회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2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 교육원장에 중앙종회의원 현응스님을 선출했다. 재직 종회의원 80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종회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추천한 현응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인터뷰 3면

현응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불교계의 사회적 위상은 계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불

교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단의 근간인 승가교육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종회는 14대 중앙종회의 중반으로 흐르는 시점에서 종도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중앙종회를 맞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역할과 협력이 컸기 때문”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종법령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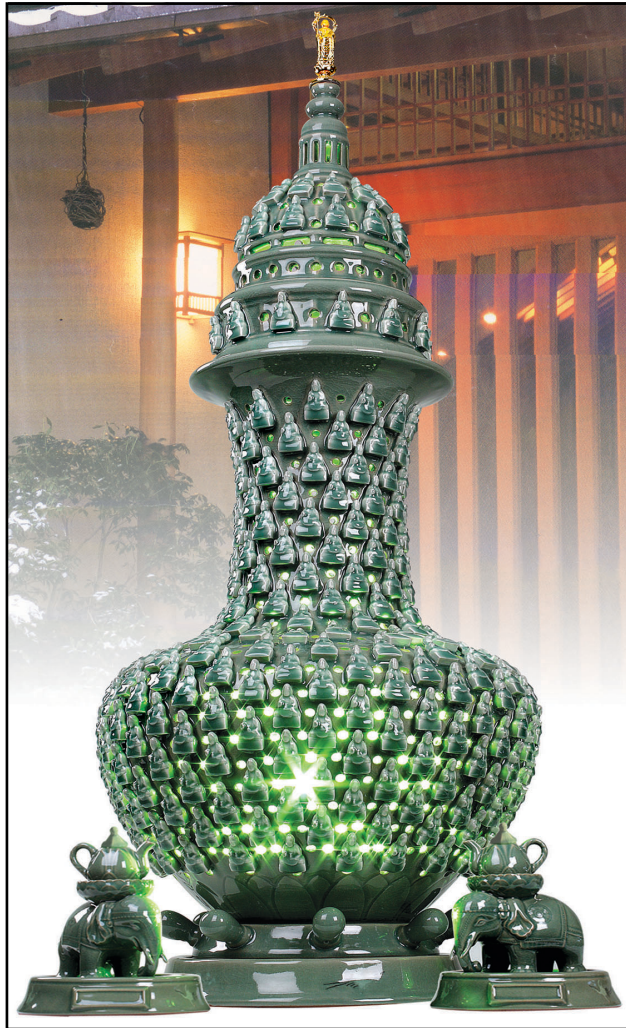
3면에 계속

부산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신설

4면

미래 내다보는 군법당 불사현장 2곳

14면



업장소멸 법륜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전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삼강청차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발침폭 30cm
- 무 게 25kg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삼강청차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재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